

방역 철저 준수 안심식당 확대

무주택 청년들에 임대료 50% 이하 주택 공급

전주시, 87곳 추가 지정... 홍보 표시스티커 부착·개인접시·국자 등 우선 지원

최근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방역수칙 실천 업소인 안심식당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87곳의 안심식당을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66개소인 안심식당을 올 연말까지 336개소로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안심식당은 ▲떨어뜨리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 손소독제 비치 등 4가지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시민들이 안심식당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가 부착되

며, 개인접시와 국자 등 식문화개선 관련물품이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이 완산·덕진구청 위생민원팀으로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더라도 영업장 이행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19일~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엔 과태료 면제

전주시가 반려견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의무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또 소유자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의무 등록대상이나 미등록 시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오는 10월부터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 미등록자나 동물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견의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변경 신청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전주지역 40여개 동물병원을 방문해 하면 된다.

다만 소유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진교성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률을 높이면 정확한 반려견 현황 파악이 가능해짐은 물론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아직 동물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게는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 대행업소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14~16일까지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청년 27명 모집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금암동 전북대학교 인근과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27명을 모집한다.

입주 물량은 금암동 20호, 효자동 2호 등 총 22호로,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로 공급된다. 주택 내부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이 기본적으로 갖춰진다.

입주 자격은 만 19~39세 청년,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순위 자격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2인 456만 원, 3인 624만 원)이며, 3순위 자격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358만 원)다.

임대 조건은 주택별로 다르나 임대보증금은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두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모집기간 내 입주를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 자산 검증을 거쳐 다음 달 초 1순위 입주대상자부터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총 4개소(45호)의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은주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최근 취업난과 주거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메이드 인 전주’ 도시브랜드, 경쟁력이 되다

전주비빔밥·전주한지·전주부채·전주완판본체·전주정신 등 전주만의 정체성 확립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는 전주비빔밥과 전주콩나물국밥, 전주한정식 등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해 세계적인 미식의 도시로 손꼽힌다.

특히 전주에서 생산된 다양한 식재료가 한데 어우러진 전주비빔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전주시는 전주비빔밥뿐 아니라 다양한 전통음식과 한지, 한옥, 한복, 관소리 등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주'라는 도시브랜드를 지키고 키워오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왔다.

대표적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전통 한지가 우수한 품질로 세계문화유산 보존·복원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세계 각국 심장부이자 기록문화의 보고인 바티칸 교황청, 세계 3대 박물관인 루브르박물관 등이 전주한지의 우수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주한지는 또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지류 전문가인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중앙연구소(ICRCPAL)로부터 문화재 보존·복원용으로서 적합하다는 '유효성 인증서'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는 전주한지가 향후 세계적인 예술품과 미술품, 고서 등 문화재 복원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주 북땀이떡.

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대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담은 영화를 가감 없이 소개해 영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전주국제영화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독립·실험·예술 영화의 표현의 해방구가 된 전주국제영화제는 세계적인 영화비평매체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시는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전주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전주의 역사와 문화, 전주시민들의 삶 속에서 전해져 온 고유의 특성을 찾아 '전주정신'을 확립하기도 했다.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은故 최명희 작가가 전주를 '꽃을 피워내는 힘'인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한데서 따온 것으로, ▲대동 ▲종류 ▲울금음 ▲창신의 4개 정신이 담겨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 도시의 시대를 끌어가는 핵심가치는 도시의 정체성이며, 전주는 '전주다움'을 가장 잘 찾아내고 지켜가는 도시"라며 "앞으로도 전주만의 정체성인 전주다움을 토대로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을 높여 시민들의 삶의 품격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립 쪽구름도서관,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용돈교육' 주제 특강 열어

전주시립 쪽구름도서관은 지난 10일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용돈교육'을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을 열었다.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는 '용돈교육의 마법', '천원으로 시작하는 10대들의 경제학'의 저자로, 최근 용돈·경제교육 강의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김영옥 작가가 강사로 나섰다.

김 작가는 강연을 통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용돈교육 방법과 올바른 경제습관을 만들기 위해 주의할 점에 대해 실용적인 조언을 전했다.

이와 관련 오는 16일에는 서신도서관에서 '우리 아이 독서력 키우는 읽기 놀이'를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을 연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서신도서관에 전화(063-281-655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생애 첫 도서관 사업은 영유아



전주시립 쪽구름도서관은 지난 10일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용돈교육'을 주제로 부모교육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에는 '용돈교육의 마법', '천원으로 시작하는 10대들의 경제학'의 저자로, 최근 용돈·경제교육 강의를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김영옥 작가가 강사로 나섰다.

자녀에게는 책과 노는 즐거움을, 부모에게는 올바른 자녀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지역 8개 도서관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